

자동 예비 성형 진공 포장기 개발, 국산화 성공 외화 및 원가 절감, 국가 경쟁력 기여



최 포 인
(주)코마스 대표이사

한국포장기계협회가 매년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에서 분야별 우수한 포장기계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포장기계대상 시상식이 이번 달 13일 열린다. 이번 제6회 포장기계대상에는 자동 예비 성형 진공포장기를 개발한 (주)코마스 최포인 대표이사가 기술개발 부분으로 중기청장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포인 사장은 “무엇보다도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쁘다”며 “20여년 포장기계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소신을 갖고 기계 개발에 임한 결과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1984년 10월 10일 육가공 설비 및 필로우 포장기 회사인 국도양행을 설립한 최포인 사장은 식품 및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식 프린터, 반자동 가스포장기, 주사기 자동 포장기계, 소시지 스틱 반자동 꽃이기계, 탈산소재 분리, 절단/주입기 등을 개발해 왔다. 그동안 유럽의 선진국형 자동 진공 포장기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 공급, 국산화하여 부품 수입에 따르는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 최포인 사장은 2003년 1월 (주)코마스로 법인을 설립한 이후 8월, 국내 최초로 자동 예비성형 진공 포장기(MODEL-5000R)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개발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품질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국산제품을 회피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최 사장. 이후 그는 국도양행을 폐업, 생산품목 및 설비를 코마스로 이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올해 3월 자동진공 포장기의 새로운 모델(KR-500)을 출시, 금번

한국포장기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도 (주)코마스의 자동성형 진공포장기는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국내 육가공 및 관련 업체의 외국 장비 도입에 따른 외화 및 원가 절감,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신속한 부품 공급 및 서비스로 생산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코마스의 자동 예비 성형 진공 포장기 (Auto Thermoforming Vacuum Packaging Machine KR-500)는 하단 필름을 몰드 모양대로 열로 성형하고 제품을 충전 후 포장 목적에 따라 대기압이나 진공 또는 가스를 주입 후 상단 필름을 덮어 씌워 봉합 포장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포장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사용이 편리한 유럽제 진공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 예비 성형 진공 포장기는 진공도가 탁월해 보관기간이 연장되고 제품의 충격 및 녹 등 외부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고형물질이나 액체, 파우더 등 다양한 생산품의 포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팩 (KOREA PACK) 2005에 자동 예비 성형 진공 포장기를 선보인 (주)코마스. 최포인 사장은 “전시회 당시 품질과 기술을 인정한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정말 한국에서 생산한 기계가 맞냐?’고 재차 반문하며 기계구입에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수출 경쟁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주)코마스의 진공 포장기는 12개국 이상에서 기계문의의를 받은 상황. 최 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본격

적으로 수출 시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포인 사장은 이번 달 18일 일본 수출을 위한 일본 국제 포장기계 전시회(JAPAN PACK)에 출품, 세계 유수의 제품과 동등하게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애국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현재 최포인 사장은 (주)코마스의 벤처기업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 최 사장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이 인정되는 업체는 발굴하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여년간 경제 위기의 순간에도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끊임없는 기계 개발을 해 온 최포인 사장. 그는 “현재 소비자의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한 기계 개발이 팽배하고 있다”면서, “엔지니어의 소신을 갖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계가 많이 개발되어 업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포장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한편 해외 진출 판로에 주력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이끌고 싶다는 최포인 사장. 고품질과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바탕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주)코마스 이끌어 온 그는 앞으로 “코마스”가 “품질의 대명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신임도를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동 성형 진공 포장기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최포인 사장이 국내 자동성형 진공 포장기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기계에 대한 정열, 포장기계 장인 인정받아 고밀도 분체충전탈기 장치 개발, 경쟁력 제고



변 호 연

세진테크(주) 생산기술 이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계 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사장님 이하 직원 모두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동포장기, 자동계량기 전문 생산 업체인 세진테크(주)는 변호연 생산기술 이사가 제6회 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 중기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92년 세진테크(주)에 입사한 변호연 이사는 산업용 자동계량기를 개발, 생산하게 된다. 이후 전자동 미곡계량소포장기를 개발, 전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 공급했다. 전자동미곡계량소포장기는 1996년 6월 EM마트를 획득, 품질의 신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150여대를 판매해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완제품으로 미국,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는 세계적인 포장기 메이커인 일본 동양자동기와 기술 제휴, 식품자동포장기인 로타리 파우치 포장기, 레토르트 포장기를 개발했다.

현재 식품용 분체 충전기의 경우 외국회사에서는 충전시 분말의 밀도를 높여 포장 부피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

변호연 이사는 “정해진 용기에 유동성 분체의 공기를 제거하여 충전하면 포장용적이 줄어 포장비, 물류비가 절감될수 있다”며 “소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느끼고 분체충전 탈기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진테크(주)는 2002년 12월 개발에 착수,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6개 시제품을 판매 호평을 받고 있다.

변호연 이사가 개발한 고밀도 분체충전탈기 장치는 분체충전

기에 vacuum copactor를 도입하여 포장의 소형화, 수량감소 등에 의한 수송 물류비를 절약하고 포장의 자동화와 인원감소에 의한 분체 포장작업의 효율화를 꾀했다. 뿐만 아니라 분말의 분진감소로 인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단시간에 연속적 탈기가 가능하고 수리가 쉬우며 장시간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필터(filter) 고장율이 낮으며 고밀도로 제어하기가 용이하고 분체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 μ m 미만의 미세분말의 충전이 가능하다.

변호연 이사는 “vacuum copactor는 탈기충전에서 계량까지 전자동이 가능하고 소포장의 탈기충진 및 플레콘의 탈기 충전, 소포장과 플레콘의 자동화, 소성작업의 효율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품을 설명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고밀도 분체충전 탈기장치(오가탈기)는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태국과 수출상담 중에 있다.

향후 해외수출이 계속 성장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을 비롯한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 연간 70만\$의 수출 예상과 국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손을 거치지 않은 세진테크(주) 기계가 없을 정도로 변호연 이사는 기계 개발에 남다른 열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속, 고정도 계량기, 쌀 연속식 진공포장기 등 현재 13년간 산학연 5건, 자체 개발 7건 등 총 16종류의 계량 포장분야를 개발, 발명특허를 비롯 5건의 실용신안특허출원을 하고 2000년 7월 ISO 9001 인증 및 2001

년도 중기청 INNO BIZ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진테크가 기술선진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주역에 변호연 이사, 그가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싫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왔다”는 변호연 이사. 산업용 계량기 제작당시에는 1년에 20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며 업무에 매진했다는 변 이사는 휴일과 퇴근 후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계개발에 대한 투지와 노력을 펼친다. 기계를 만지고 개발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성실함과 근면성이 오늘날 세진테크(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무분별한 기계의 카피(copy)는 궁극적으로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에서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는 변호연 이사는 “포장기계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창의력과 자부심을 갖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가 배고플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지, 배부른 이후 도와주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늘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변호연 이사.

“남을 위해 일평생 사신 아버지와 정직과 겸소함을 모토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큰형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들 삶의 모습을 반이라도 좇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고 전하는 변호연 이사, 기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가 포장업계 진정한 장인이다. [K]

박초혜 기자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통해 천만불수출실적 달성 높은 기술력 바탕으로 인지도 높여



이 원 우

(주)세종파마텍 대표이사

제약·식품용 핵심포장기계를 자체 기술력으로 전문생산하는 이원우 (주)세종파마텍의 대표이사는 1989년 회사를 창업한 이래 국내 및 해외시장에 자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및 국내 수입기계 대체효과로 국익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로 이해 이사장은 1996년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및 통상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을 시작으로 2002년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및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2004년에는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올해에는 1,000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회사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해 한국포장기계대상 경영관리부문 수상에 이어 올해 수출판매부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

1980년대 국내 제약생산기계 업체의 빈약함을 피부로 절감한 이원우 사장은 1989년 세종기계공업사를 창업한 이래 국산 기계의 선진화를 위한 신기술개발과 연구에 전력투구한 결과 중량이 자동으로 컨트롤되는 방식의 정제기와 캡셀충진기를 생산했다.

또한 로타리식 정제압축 성형기, 정제압축성형기, 캡셀자동충진기, 분말원료 분배기, 정량공급장치, 정제코팅장치, 자동캡셀샘플링기계 등을 특허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1998년 국제표준화 규격인 ISO 9001 품질시스템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유럽 안전도 마크인 CE 마크를 획득하면서 국제적인 품질의 기계제조업체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장은 상표경쟁력 강화를 위해 SEJONG PHARMATECH과 (주)세종파마텍의 상표출원 등록을 완료하는 등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의 품질개선과 인지도 증대를 위한 상표개발에도 경주하고 있다.

세종파마텍은 회사 창립 이래 국내시장에서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당사 제품이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자심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결과 1993년 미국 ZENITH LAB사에 셀충진기(CAPSULE FILLING 모델 SF-70)를 처녀 수출하여 미국시장에서의 호평에 힘입어 미국의 여러회사(VITATECH, CHIMINS CO, ALPINR HEALTH, BIOCRAFT 등)와 프랑스 SIOCRAFT 등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국가에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이 사장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세종파마텍은 올해 1,000만불 수출실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

이원우 사장은 폭넓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기적인 해외순방은 물론 제품의 해외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포장기계 전시회로는 최고의 인지도가 있는 독일 아케마전시회와 인터팩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한다.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여러 업체에서 선보이는 신제품들 속에서 세종파마텍의 제품이 기능적인 면이나 디자인에서 선진 어느 기계와도 뒤지지 않는다는 호평과 찬사를 받았으며, 각 전시회기간 중이나 끝난 후에 각국의 제약업체로부터 많은 제품문의 및 주문을 접

수했다. 이를 계기로 세종파마텍은 세계적인 유명한 제약포장기계 업체들에게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원우 사장은 “우수의약품 제조설비를 연구, 개발 생산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초우량기업의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미래를 위해 우수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창의, 성실, 신의’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을 위해 관리체계 및 개발마케팅을 강화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품질향상을 이룩하고 고객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당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경영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구성된 노사협의회 미팅을 통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장은 현재 국내 제조업체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제약포장기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세계시장 개척에 경주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직 제약포장기계의 발전을 위해 한 길을 걸어 온 이원우 사장. 그의 바람처럼 세종파마텍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

이한열 기자

재관인쇄분야 산증인으로서 기술개발 매진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 수상



고 광 민

삼화산업(주) 대표이사

“그동안 인쇄기술 개발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제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선조들의 후예로써 묵묵히 인쇄기술의 발전에 종사해 오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수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인쇄 산업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주관하는 제21회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에 고헌민 삼화산업(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고광민 대표이사는 1966년 조선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삼화제관(주)(현 롯데알미늄)에 입사하여 인쇄와 제관 분야에서 기술을 익혔으며, 이어 관리, 회계, 기획 분야를 두루 섭렵하면서 경영수업을 쌓아왔다. 이후 1990년 전무이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삼화산업(주)을 이끌고 있다. 고 사장은 그동안 볼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제관인쇄의 기술개발과 저서발간, 후진양성, 인쇄고무 롤러 개발 등에 헌신, 제관인쇄분야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고 사장은 북인천이업중교류회장, 한국기록보존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2004년에는 아산시기업인 대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광민 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과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현재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제품과 한층 발전된 작업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내 인쇄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편이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사장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곧 사장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인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사장의 남다른 운영철학으로 인쇄기술부문에 힘쓰고 있는 삼화실업은 1973년 설립 이후 32년간 식료품 저장용 금속용기와 금속인쇄, 각종 인쇄용 고무롤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무롤러사업은 세계 유수의 3개사와 기술 제휴하여 고품질, 저비용이라는 인쇄산업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인쇄기술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다른 타 제관회사와는 차별화되게 금속인쇄분야에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 사장은 그동안 인쇄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중 코팅롤러 개발로 인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젤라틴을 주원료로 하는 코팅롤러를 개발하여 귀빈들을 초청하여 설명 및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오븐의 온도센서가 오작동하여 적정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꺼내보니 Sol

상태의 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황당함과 창피함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고 사장은 모든 기기에 복수제어 장치와 이상경보장치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실수로 인해 삼화실업은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돼 오히려 전화위복이된 경험이었다.

현재 국내 인쇄산업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인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 사장은 후진들의 기술 습득에 밑거름이 되고자 틈틈이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인쇄기술 이론가 실제’라는 책을 지난 연말에 편찬했다. 특히 이 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학술부문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제관 및 인쇄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석도금강판에 금속인쇄를 한 포장용기의 상품가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쇄표면에 라미네이트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창출시킬수 있도록 미적, 예술적 감각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용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남다른 장인정신으로 포장 및 인쇄산업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고광민 사장.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포장·인쇄업계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

이한열 기자